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0호【우계 25503호】주제 105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인민복무전에서 열혈투사가 되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2일 회의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내고 당중앙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초급당조직들을 당정책관철의 기본전투진지로 더욱 강화해 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2일 회의가 12월 24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첫날에 이어 2일 회의의 지도하시기 위하여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의 지도밑에 회의는 계속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를 모시고 개막된 첫날회의를 통하여 당 제7차대회 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초급당위원장들의 대회 불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깊이 간직한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각급 단위 초급당위원장들이 자기 단위 당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토론들을 계속하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 성북분장

초급당위원장 신홍수, 벨레비온 국창작사 초급당위원장 최영철, 신성원철도분국 정치부장 리은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당위원장 최용, 18호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장 윤택환, 금속공업성 초급당위원장 김순철, 창성식료공장 초급당위원장 여인남, 조선군당위원장 리태호, 단천시인민보안부 정치부장 위광복, 천리마타일공장 초급당위원장 박대훈, 점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 초급당위원장 오철근, 길주군인민위원회 초급당위원장 김만철, 계남목장 초급당위원장 라인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공무보수부초급당위원장 김영철,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초급당위원장 김남건, 남양제염소 초급당위원장 리광호, 온천군 용반농장 초급당위원장 김수일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기술조직인 초급당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드린없는 선진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원 강력한 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 프락파 잇닿아있는 혁명의 전초기지로 다져나가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였다.

그들은 초급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관철을 당사

업의 주선으로 들어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 성북분장 초급당위원장에서는 당의 뜻대로 당일근들이 정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돌격전의 앞장에서 한몸 내대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메년에 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하였다.

전투장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곳에 《혁명야 우리를 지켜보라, 사과향기속에 원수님 모실 그날을 위하여!》라는 표제물 단 직판선전판을 세워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당세포들에서 따라달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관운동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파수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초급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과일생산에서 최고 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고산과수사과바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으며 고산과수종합농장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실현으로 보여준 전형단

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당정책을 자막대기로 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고 중심고리를 찾아 대중의 정신크를 불러일으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적을 창조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대회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사랑한 로력적성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의 속하전문을 받아안은 기업소당위원장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통원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분란도독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뒤떨어진 단위의 일군들에 대해서는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누구나 설비원상복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설비관리정리를 창조하고 일반화합

로써 더멀거리건설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었으며 지난해보다 20여만t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에 자랑한 로력적성품을 마련하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투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데 당사업을 지향시키고 북돋우시는 과정에 당생활의 모든 고려가 과학연구사업과 밀접히 결부될 때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당의 의도에 맞게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침단을 돌파하며 힘차게 내달리라고 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직말씀을 받들어 과학자들이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도록 당세포위원들이 정치사업의 도수를 높이고 당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동시킴에 잠긴 수백세대 주민들의 애고애를 수 많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주고 청년들을 믿고 함직한 연구과제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어 그들이 국제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청년과학자들의 본대를 남김없이 파시하도록 하였다.

토론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자기 단위 초급당조직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는 총성의 전투대오로 토론하다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도록 하는데 당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온 단천시인민보안부 정치부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수령결사옹위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면서 수령보위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였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인민보안기관의 성스러운 사명으로 내세워주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인민보안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어 폭우로 생명재산을 보위한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인민복무전에서 열혈투사가 되자

제 1 차 전 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2일 회의 진행



1번에서 계속

센터마라임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혁명적수령관이 확립되고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어나가고 있다.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구호를 불철저하게 실천하며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혁명적수령관이 확립되고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어나가고 있다.

현대판공과분자들의 모태로 헤엄까지 당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투쟁한 경험은 혁명적신념을 저버리면 죽은 목숨이든 총알원들 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서는 단 한결의 양보도, 0.001mm의 드림도 없어야 한다는 귀중한 전례를 참가자들의 심장마다 새겨주었다.

제남목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적지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명도업적단위체계 목적의 면모부터 일신시키기 위해 불결대를 붓고 당원들에 대한 분공조직을 짜고들면서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어 불과 너달만에 분장의 덩치 큰 10여개의 집집승호동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변모시켰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근 100개의 집집승호동들에 대한 개건보수를 전부 끝내고 소금밭과 소석회생산기지, 배합이공

장파 후양소를 새로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목장에서 이룩한 성과속에는 종업원들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실천가, 총정의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온 초급당위원회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도론자들은 역사적인 창성전선회의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시고 지방공업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와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생산장성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창성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명상품, 명제품개발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종업원들이 새 제품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하였으며 새 제품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것을 제도화하여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나감으로써 하였다.

질 좋은 산과일가공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일반화함으로써 종업원들속에서 무려 100여건의 발명과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어 《황금산》상표를 단 공장의 특색있는 산과일가공품들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초산군당위원회는 초급당조직

들의 역할을 높이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감으로써 산골군을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켰다.

초급당위원장들과 당원들을 선봉에 세워 지방공업공장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백여리구간의 도로확장공사를 단 12일동안에 끝내었으며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주민세대의 조명을 보장하고 주요단위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자연보호식수도회와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농장들의 대렬을 높이였으며 군소제지의 면모도 완전히 일신시켰다.

도론자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야전형의 일군이 되어 현장지도, 현장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박력있게 벌리면서 실천적방법으로 생산자대중을 이끌어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8호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서부터 군인생활, 인민생활향상의 결과품을 얻어나감에 대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종업원들속에서 깊이 새겨주는데 모범을 삼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었던 현장에서 공개당총회를 열고 일군들과 종업원, 가족들모두의 가슴마다에 당정책결사관철의 각오를 새겨주었으며 이로전투현장에 지휘자를 정하고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하였다.

들끓는 현장에 접근시킨 당사업이 그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어 당안에

결의다짐 물고기잡이목표가 빛나게 넘쳐 수행됨으로써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로부터 18호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일부 사람들처럼 당정책을 교과서의 세계를 위우듯이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과 피와 땀으로 결사관철한 전위투사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아안았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공무보수부문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들끓는 전투현장에 들어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기량이 되어 주체비료생산정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힘을 냈었다.

비료생산에서 제일 걸린 대상건설을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끝내야 할 과업이 제기되었을 때 지체없이 지휘부를 현장에 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적으로 틀어쥐고 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였다.

수백℃가 넘는 로속에 초급당위원장의 남면저 뛰어붙고 모든 당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비료생산계획이 넘쳐 수행되도록 하였다.

도론자들은 통하여 참가자들은 일군들의 이신작적이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당사업을 현장정치사업, 사랑들의 마음과의 사업으로 방향 전환시켜나감에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의 광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대회에서는 현시기 일부 단위들에서 초급당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 지 못하고있는 현상과 부족점들이 심도있게 분석되고 호상비판들이

신랄하게 진행되었으며 결함들에 서 교훈을 찾고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이 도의되었다.

도론들에서는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발생시킨데 대하여 강하게 비판되었으며 인민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독수화하면서 독단과 전횡,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들에 대하여 특별히 각성을 높이고 위협시할때 대하여 강조되었다.

도론자들은 무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하였다.

일군들부리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든든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당정책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고있는 결함들이 비판되었다.

도론자들은 초급당위원장이 신념이 뻗뻗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독독히 관철할수 없으며 자기 단위 사업을 당일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각오가 부족하고 폐쇄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에 빠져 앉아 동계면 당정책관철에서 뒤자리 를 차지하게 된다는 교훈을 새기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초급당위원장이 계구실을 하지 못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론들에서는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깃든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희생을 집중하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이 비판되었다.

호상비판들에서는 일군들의 어찌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고 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 붙지 못하는데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따고들지 못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약동하는 세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일군들이 정직된 사고방식과 구태의연한 일본색을 버리고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갈 때만이 당의 권위를 철저히 옹위할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 권한을 안아올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강조되었다.

비판도론들과 호상비판들을 통하여 전당의 초급당조직들을 조직력과 집행력이 강한 전투단위로 든든히 꾸리고 초급당위원장들의 사상관철과 사업기풍, 일본색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들이 언급되었다.

도론자들은 초급당조직들을 당 제7차대회 결성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격로써 일어나는 화력중대로 내세워 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조직자, 선전자, 집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맡은 단위를 수행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초기지로 더욱 든든히 다져나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경모의 정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길은 12월 24일을 맞아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는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 충정의 대오가 끊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칭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적혀있었다. 군중들은 우리 혁명무력을 백전백승의 힘으로 이끄시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주체조선의

강성대국을 위한 역년기들을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품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리 머리 삼가 인사를 드리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민주대학자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섯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대양상들도 헌없는 그리움의 불길이 굽어차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대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대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게 실현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레에 굳게 붙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사적 길에 걸 발라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이 세상 그 누구도 겁어보지 못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불사신마냥 헤쳐오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를 위해 단고불후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시대의 대성인, 진실적인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송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최고화신이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성스러운 혁명생애의 원기전 안제나 흥건과 함께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유신인 충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대대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애국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최고의 프로페터의 본보기로 빛내어주시었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해의혁명동지, 한민족의 선배라고 정하게 불러주시며 조국은 충현을 생각하고 충현은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 나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9돌에 즈음하여 2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백두산녀장군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최부일동지, 모두일동지, 노광

철동지와 김덕순내각부총리,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근로단체, 성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혁명학원,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명칭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씨가 적혀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대한 뜨거운 충정심을 안으시고 조국의 해방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거머쥘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쟁한 수평적사용위정진을 따라배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백성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마음속으로 사수하며 혁명의 불꽃을 높이 불고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역세게 걸어나갈 불타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회령교향집방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9돌에 즈음하여 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24일 회령교향집을 방문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온성리귀에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고있다. 그들은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시고 백두산녀장군의 송고한 모습을 우리 머리 격정을 굽히지 못하였다. 추내났은 수순의 고향집에 놓이신 그들은 어머니님께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열렬한 혁명가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받아보았다. 회향혁명사적관을 찾은 그들은 입ທີ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복속으로 정권의 옹호보위하신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그들은 어머니님께서 깃발된 적의 실용과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불어오는 강도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두만강을 건너신 망양나무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충현일군들과 녀맹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쟁한 수평적사용위정진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붙여주신 혁명업적의 녀성혁명가가 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사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한편 이날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자로서 뜨겁게 새겨져있는 김기충회령교향중학교와 회령시교향공공청, 회령교향악공청 등 회령시 지역에서 새로 임파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궁전앞에는 한평생 띠아쓰는 불길과도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온몸을 불태우시면서 사생정단의 선군장령으로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역년기들을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었다. 두대에는 교향곡 《장군님은 대양으로 영생하신다》중에서 제1악장 《흰눈덮인 교향집》, 제2악장 《장군님 추치민 쓰신다》, 제3악장 《인민 사랑의 노래》, 제4악장 《조선의 힘》, 편곡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이 세상 그 누구도 겁어보지 못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불사신마냥 헤쳐오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를 위해 단고불후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시대의 대성인, 진실적인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송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최고화신이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성스러운 혁명생애의 원기전 안제나 흥건과 함께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유신인 충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대대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애국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최고의 프로페터의 본보기로 빛내어주시었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해의혁명동지, 한민족의 선배라고 정하게 불러주시며 조국은 충현을 생각하고 충현은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 나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룡진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룡진축 국립교향악단음악회 《영원한 대양》이 24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시급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 만대에 빛내리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룡진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9돌에 즈음하여 경주공연들이 중앙과 지방의 국장들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소수들은 총칭의 200인원규모에서 승리의 영예를 펼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뜻있는 이념을 빛내어주시고 인민의 공지와 화합이 내쳐흐르고있었다. 수도 평양의 국장들에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평양극장에서는 피리다가 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혁명극 《혁명》이 공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만드시 승리를 이룩하신데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이 계속되어 공연이 계속되어 갔다. 평양극장에 공연이 계속되어 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만드시 승리를 이룩하신데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이 계속되어 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만드시 승리를 이룩하신데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이 계속되어 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만드시 승리를 이룩하신데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이 계속되어 갔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모한 제일민족조선인주민대표단 성원들이 이역의 애국조국으로 떠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그 마흔신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제일조선인주민대표단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중앙수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일을 수행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습니다.

12월의 조국강산에 넘쳐나는 뜨거운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에 걸침부리 섬갈까지 송고한 후대사상, 인민사랑의 화육이 끊임없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명절인 12월 24일에 즈음하여 혁명학원들과 건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내주시었다. 언제나 행복을 겨워있는 아이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온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룡진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9돌에 즈음하여 평양무도회가 24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의 총전국경에서 만리마세대 영웅장군의 승리와 충성을 넘김없이 펼쳐진 승리의 증지드높이 선군조선의 령도의 경이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학적 거들 베푸신 크나큰 은정을 현세 불멸불후의 모교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룡진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9돌에 즈음하여 평양무도회가 24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의 총전국경에서 만리마세대 영웅장군의 승리와 충성을 넘김없이 펼쳐진 승리의 증지드높이 선군조선의 령도의 경이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